

# 학교주관구매제가 부른 '교복 대란' 광주·전남 '사복 등교 사태' 되풀이

광주·전남지역 국·공립 중·고등학교 신입생 상당수가 신학기가 시작됐음에도 교복을 구하지 못해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교복 가격 안정화를 내걸고 추진중인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빚어진 일로, 교복 구매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학부모들의 사복값 부담도 불가피해졌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두 차례나 학교 주관 교복 구매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지만 학생 수가 적어 교복제작 업체 등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교복 제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첨단고 신입생 396명 중 교복 구매에 참여한 학생이 165명(44.7%)에 불과해 교복 제작 업체측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첨단고 측은 '교복 물러입기'에 참여한 학생이 많아 상대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려는 신입생이 적어 발생한 문제로 보고 부랴부랴 수의계약을 통해 교복 제작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첨단고는 수의계약을 통한 교복 제작에도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신입생들의 사복 등교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남의 사정은 더하다. 전남도 교육청은 도내 14개 고교가 교복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

## 학생수 적은 15개 고교 업체 입찰 포기...구입 못해 교육부는 별 대책 못내나

교가 9곳에 이르는 만큼 수지를 맞추려는 업체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현행 '학교 주관 구매제'로 제작 업체를 선정하기 쉽지 않다는 게 교육 당국 분석이다.

또 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신학기에 맞춰 교복을 납품하지 못하는 등 혼선이 벌어지는 학교도 발생하고 있다.

광주지역에만 23개 고교가 교복 업체 선정 시기가 늦어지면서 교복 착용 시기를 개학일에 맞추지 못해 신입생들이 사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일선 학교의 혼란만 가중되는 형편이다.

교육부는 여기에 학교 전통을 무시한 '표준 교복 디자인'을 반영한 동일한 교복을 채택할 것을 추천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학교측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전남지역 A고교 관계자는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채 학교별로 똑같은 교복을 입으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소규모 학교 교복 구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 표준 교복 디자인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 상태지만 참여한 학교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학교주관교복구매제 추진 현황을 조사해 소규모 학교 등 지역 사정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다. 완도 금일고의 경우 14명의 신입생을 위한 교복 구매 입찰 공고를 냈지만 참여 업체조차 찾지 못했다.

특히 금일고 뿐 아니라 전교생이 100명 미만으로 입학생이 30명이 못되는 고등학교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된 이후 전남지역 일부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선 학생 수가 적은 탓에 교복 업체의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사복 등교'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날 광주시 북구청사에서 열린 '사랑의 교복 나눔행사'.

## 금연구역 흡연 '전담 단속원' 뜬다

금연구역을 돌며 흡연자들을 적발하는 '전담 단속원'들이 생긴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끊이지 않는 데다, 단속 과정에서 발뻠하는 흡연자들과의 실랑이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 동구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계도하고 적발하는 전담 단속요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금연구역 단속원'을 위촉,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동구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4명의 전담 금연구역 단속원을 선발, 관할 구역 내 금연구역을 돌며 흡연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동구 뿐 아니라 남구와 북구도 금연구역

## 광주 동구 운영 조례 제정 남·북구도 내달부터 시행

단속 과정의 어려움이 제기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금연구역 단속원'으로 불리는 전담 단속요원 확충에 나선 상태다. 이들 자치단체는 관련 조례 제정이 이뤄지는 다음달 이후 각각 5명의 금연구역 단속원을 위촉,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각 자치구는 전담 단속원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실태점검과 계도 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영상 촬영 등으로 적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금연구역이 지난해(2만600여곳)에 비해 3만4600곳으로 확대됐지만 전담 단속요원 없이 각 자치구 공무원 2~9명이 1인당 수천곳이 넘는 업소의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흡연자들이 발뻠하거나 도주하는가 하면, '신분증 없다', '증거를 가지고 와라'며 반발하는 등 실랑이도 심심찮게 벌어지는 실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단속을 할 용하면 야간과 휴일에도 금연구역 점검과 단속이 가능해져 환경 수월해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장성 요양병원 참사' 10억대 손해소

### 유가족·부상자 등 제기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실전사상 나눔요양병원(이하 효사랑병원) 방화 참사와 관련, 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효문의료재단과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사문(54세) 등 재단 관계자 4명의 과실 책임을 묻는 10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장성효사랑병원 화재 사건의 희생자 10명의 유가족과 부상자 3명 등 43명을 대리해 효문의료재단, 장성 효사랑병원 행정위원장, 관리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이날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정웅) 심리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병원 관리자가 소화기를 잠금장치가 된 캐비닛에 보

관하고, 비상구를 열쇠로 잠가 봉쇄해 놓는 등 소방 관련 법규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커졌다"면서 "부실하게 안전 관리를 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장성요양병원화재유가족대책위 소속 가족들의 경우 10억원 상당, 부상자는 1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정인기 변호사는 "피고들이 업무상 관리지사상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데 항소하고 민사 재판에 대해서는 대형 범법인 변호사를 고용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피해자가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장성 효문의료재단에 대한 해산을 결정했고 효사랑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박기용기자 bhj@kwangju.co.kr

## 30m 절벽아래 차량 추락 약초캐러 가던 3명 사망

5일 오후 2시10분께 순천시 서면 계곡산 영골곶터 인근 비포장 도로 30m 아래 절벽에 지프 체로키 차량이 전복된 것을 행인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차 안에서는 차량 소유주 박모(59)씨와 공모(56)씨, 이모(5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광양에 거주하는 박씨 등의 유족들은 "지난 2일 약초를 캐러 순천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1~2일 전에 주로 산악 자전거를 타는 비포장 도로(폭 3.4m)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

## 다방 주인 저금통 텅 전 종업원

○--자신이 일했던 다방을 찾아가 주인이 3년간 수백만원을 모아 둔 빨간 돼지저금통을 훔쳐간 30대 남성 이 경찰에 적발.

○--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최모(32)씨는 지난날 10일 새벽 4시5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A다방에서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환풍구에 보관 중인 열쇠를 꺼내 침입한 뒤, 업주 김모(32)씨의 현금 5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훔친 혐의.

○--김씨는 7개월 전 A다방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열쇠와 저금통이 보관된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일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문밖 사장이 예치중이던 빨간 돼지저금통이 떠올랐다"고 진술.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지법 3건 등 간통죄 재심 청구 잇따라

헌법재판소가 지난날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위헌 결정 직후부터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17건, 19명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날 27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1심 재심 청구 사건은 14건에 피고인은 16명이다. 2심은 3건에 3명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지난날 27일 오전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과 춘천지법, 청주시지법, 전주지법에도 재심 청구가 이어져 위헌 결정 다음날에만 5건이 접수됐다. 춘천지법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2년 10월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광주지법에서는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이 접수돼 현재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현재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신축 4층건물)  
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물건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용해동 교회앞 금호아파트 사이  
대지310평 전주택 2채, 무화과나무있음  
매매가 3억 (용 1억 2천)

①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룸20개(1층 상가 2개) 월 700만, 매매가 7억 8천	④ 전대정문 2분 룸11개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매매가 6억 5천
② 용봉동 용봉지구 미래도 A 코너 룸 19개 (1층상가, 4층 주택) 엘리베이터 완비, 대지 106평 월수익 900만, 매매가 11억	⑤ 동신대 후문 2분 룸 18개(1층 상가) 주인세대 4층 매매가 10억
③ 동구 대인동 고사원 룸 72개 월수익 1천2백 매매가 21억	⑥ 생촌동 원룸 1개(운천역2분) 매매가 4천8백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7층건물 (올수리)  
월수익 900만  
(주인 직접 운영시 월 1,800만 수익 발생)  
매매가 13억 (보 1억, 용 6억)  
추천물건 영주동(화정동)상가건물  
1~2층 상가 3층주택 삼거리 코너앞  
매매가 7억 3천 (보 1억 4천)

① 나주시 상명동 상가건물 2층 영광초교앞 1층 62칸, 2층 42칸 월 수익200만, 매매가 2억8천	③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빌라부지) 도로2차선면 바닥가 5분 무화과 나무 식재됨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매매가 3억2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원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	④ 수원지구 모이명/합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⑤ 수원지구 3층 롯데마트옆 4층중 3층 62평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⑥ 서구 상무지구 수림6층 15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4천8백
⑦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1천8백, 매매가 20억	

(주)대신 010-6670-9800

###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학원)

평수 100평 (전용 80평)  
이면도로코너  
학원리모델링 함  
주차 4대 무료 확보(주위 200대)  
중심 상무지구에서 저렴함  
보 3천, 월 130만  
나주 상가 2층건물 매매  
① 영신중, 고교 앞, 영강 초교 앞  
② 대덕 APT 유동인구 많음  
③ 대지 210평 (1층 6칸)  
④ 건물(2층2칸), 학원적합  
매매가 2억 8천  
010-6670-9800

### (주)대신경매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원스톱지원  
건축 리모델링 개발  
무로상담해드림

근린사실/근린주택

- ① 순천시 행동 (토 373㎡, 건물 1,304㎡) 감정가 17억, 최저가 12억
- ② 순천시 연향동 (토 146㎡, 건물 276㎡) 감정가 5억7천, 최저가 5억7천
- ③ 순천시 장천동 (토 423.1㎡, 건물 1,138㎡) 감정가 10억, 최저가 5억7천
- ④ 남구 백운동 (토 315㎡, 건물 636㎡) 감정가 5억2천, 최저가 3억5천
- ⑤ 남구 지석동 (토 105㎡, 건물 88㎡) 감정가 8천1백, 최저가 5천1백
- ⑥ 북구 오룡동 (토 1,199㎡, 건물 3,987㎡) 감정가 35억9천, 최저가 24억
- ⑦ 동구 개량동 (토 445㎡, 건물 1,558㎡) 감정가 10억8천, 최저가 4억9천
- ⑧ 북구 일곡동 (토 9,600㎡, 건물 250㎡) 감정가 41억, 최저가 41억

근린 상가

- ⑤ 서구 치평동 (대 37㎡, 건물 165㎡) 감정가 3억6천, 최저가 1억
- ⑥ 광산 도산동 (대 91㎡, 건물 128㎡) 감정가 1억2천, 최저가 5천5백
- ⑦ 북구 중흥동 (대 13㎡, 건물 32㎡) 감정가 1억9천, 최저가 8천5백
- ⑧ 서구 금호동 (대 140㎡, 건물 235㎡) 감정가 6억5천, 최저가 4억5천
- ⑨ 광산 월계동 감정가 2억2천, 최저가 7천1백
- ⑩ 서구 용인동 감정가 8억7천, 최저가 4억8천

주요소

- ① 서구 미림동 (토 1,132㎡, 건물 278㎡) 감정가 9억9천, 최저가 6억9천
- ② 남구 안촌동 감정가 7억, 최저가 4억9천
- ③ 광산구 북동동 감정가 8억8천, 최저가 8억9천

토지

- ① 서구 매월동 (토 1,960㎡) 감정가 3억5천, 최저가 2억4천7백
- ② 남구 봉선동 (토 417㎡) 감정가 1억6천, 최저가 9천4백

010-6670-9800 / 062)382-5500

### 경매학원

이제 경매는 대중화시대  
경매학원  
↓  
① 기본 실전스터디반  
② (평생 회원반, 소수 정원제)  
(경매 입찰부터 매매, 임대)  
↓  
개발 건축 리모델링까지  
원스톱  
↓  
① 수요일 오전10시~12시  
(저녁 7시30분~9시)  
② 목요일 오후 7시30분~오후 9시  
경매 컨설팅 해드립니다  
010-6832-9700  
062-382-5500